

■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인터뷰



“한중 FTA 광주·전남에 큰 기회”

김·전북 수출 유망... 농수산물 가공시 부가가치

석유화학·제철 강점에 중국 인접 시장선점 유리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8일 “한·중 FTA가 실시해도 광주·전남의 농수축산물은 민감 품목으로 최대한 보호 된다”며 “특히 ‘슈퍼 김’ 등 농수축산물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재가공해 수출한다면 전남은 한·중 FTA 최대 수혜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이날 전남대학교 특강 후 광주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중 FTA에 대해 농수축산분야에 대한 걱정이 많지만 정부에서 민감, 초민감 품목을 선별하는 등 권익보호를 우선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과 일문일답.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전남 농업분야의 피해가 예상된다. 보완책은 있는가.

▲한·중 FTA는 정부가 5년 전부터 스타터 해왔고 실무차원의 사전 협의를 1년 반 정도 진행했다. 특히 민간분야에 대해서는 정상회의 때 도 서로 간에 배려키로 합의했다.

현재 중국과는 1년 반 넘도록 농수축산물 부문에 있어 초민감 품목의 비율을 몇 %까지 할 것인지, 이들 품목에 대한 혜택을 어디까지 줄 것인지에 대해 사전 협상 중에 있다.

1단계에서 초민감·민감 품목의 비율이 결정되지 않으면 2단계 협상 자체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농·수·축산업과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민감과 초민감 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전남은 농·어업이 발달했다. 전북과 김 등은 일본과 중국에 비싸게 수출이 가능하다. 또 여수에 석유화학이 있고 광양에 제철소도 있는데 다 서해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한·중 FTA가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EU FTA 발효 1년이 지났다. 소비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하다. 특히 유럽 자동차 수입가격은 왜 줄지 않는 것인가.

▲가장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이

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FTA를 통해 “왜 통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고 묻는 자체가 가장 큰 효과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에 가격하락 효과가 미비하다.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할 문제다. 체계 가격하락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광주·전남이 향후 10년간 통상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김, 녹차 등 경쟁력 있는 품목이 많다. 농업기술원 등에서 품종연구를 비롯해 가공식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농·수·축산물을 가공해 수출을 해야 한다. 1차 상품 생산만으론 경쟁이 안된다. 가공공장을 만들어 1차 상품과 관련된 가공식품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부가가치도 오르고 고용효과도 생긴다. 그러면 지방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수 석유화학 단지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의 거시적 보호아래 FTA를 이용해야 한다. 우리가 한·중 FTA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적어도 10~15년이다. 그 이후에는 100% 개방이 되고 효과를 얻어질 것이다. 그 전에 선점을 해야 한다.

—“통상 전도사”로 지역민에게 당부할 말은.

▲국내에 한정이 돼 있다. 세계로 뻗어 나가야 한다. 통상이 필요

한 이유다. 물론 내수도 중요하지만 내수를 키운다 해도 그것은 전 세계를 상대하는 것보다 파이가 적은 것이 아닌가. 소득 3만~4만불로 가기 위해서는 세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통상국가가 되어야 한다. 통상은 미래를 위한 발전 전략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가계대출 눈덩이...650조 눈 앞

한달새 다시 확대...비수도권 증가폭 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이 650조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은행이 9월 내놓은 ‘2012년 8월 중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을 보면 올해 8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난 649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달 1조7000억원보다 컸지만 증가율은 둔화했다. 8월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4.1%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8월 8.8%를

고점으로 12개월 연속 감소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대출·기타대출 모두 늘어 1조5000억원 증가한 460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 등)은 8000억원 늘어난 189조7000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000억원 늘었다. 비수도권은 이보다 많은 2조1000억원 증가했다. /연합뉴스

신용불량 주원인은 ‘실직’

경기침체 지속...개인워크아웃 다시 증가세

채무자들이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주된 이유는 실직, 생활비 증가, 사업 실패인 것으로 나타났다.

9월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용회복위원회 지원 신청한 고객 가운데 21.3%(중복집계)에 해당하는 12만8340명이 생활비 지출이 많아져 빚이 증가했다.

실직 12만3943명(20.6%), 사업(영업)소득 감소 8만364명(13.4%), 사

업실패 4만8406명(8.1%), 개인간금전거래 4만4445명(7.4%), 근로소득 감소 4만559명(6.7%) 등이 뒤를 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춤했던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이나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신청자도 다시 늘고 있다.

경기침체가 지속해 빚을 갚지 못하는 고객이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워크아웃 신청건수는 2008년 7만

9144건에서 2009년 10만1714건으로 늘었다가 2010년 8만4590건으로 줄었지만, 2010년 9만1336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개월간 6만441건이 늘어왔다.

채무자들은 워크아웃 신청 후 빚이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하면 채무액 감소 정도는 줄었다.

지난 8월 기준 워크아웃 신청자의 조정 후 채무액은 9989억원으로 조정 전 1만8877억원의 52.9% 수준이었다.

2008년에는 조정 전 40.6%, 2009년 50.2%, 2010년 43.3%, 2011년 46.9%로 감소했다. /연합뉴스

임산부가 행복하면 미래가 밝아 집니다

光銀 ‘임산부의 날’ 행사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임산부의 날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 3층에서 출산 예정인 여직원 25명을 초청, ‘CEO와 함께 하는 임산부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지난해에 이어 펼쳐진 이날 행사는 출산 예정인 여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다. 송기진 행장은 출산 예정 여직원들에게 축하와 신생아 목욕용품 세트를 선물했으며 행사 후 출산 예정 여직원들을 모두 임원 차량으로 에스코트 하는 편의를 제공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육



아휴직중인 직원 승진사실 실시, 자녀 직원 특별 호봉 가산제 도입, 자녀 출산시 CEO 축하메시지와 함께 출산용품세트 지원 등 다양한 가족친화적 인사정책을 펼치고 있다. 광주은행은 이러한 가족친화 경영을 인정

받아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 주관 ‘아나방기 좋은세상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과 지난 7월 인구의 날에는 송기진 행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시판 고추장은 설탕·소금 덩어리

시중에 판매되는 고추장 제품에 당류가 25% 넘게 섞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분은 과잉 섭취하면 당뇨병, 비만, 충치 등 질병이 우려되는데도 대부분 고추장은 당류 함량을 표기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이 대형마트에서 팔리는 18개 가정용 고추장을 분석한

결과로는 전체 제품에서 당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7%에 달했다.

—‘정정원순창 순창고추로 만든 100% 국산고추장’의 당류 함량이 31%로 가장 많았다.

—‘이마트베스트 국산태양초 쌀고추장’, ‘진미식품 국산통팔 태양초 고추장’이 모두 28%로 뒤를 이었다. ‘홈플러스 우리쌀 태양초 고추장’이 25%

로 가장 적었다.

—당류 함량 정보를 제공한 제품은 ‘홈플러스 우리쌀 태양초 고추장’뿐이었다.

—이들 고추장의 나트륨 함량은 고추장 100g당 평균 2436mg에 달했다. 성인 기준 하루 나트륨 권장량이 2000mg이다.

/연합뉴스

신청안내(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참가자격
 - 만18세 이상(1994년 10월 21일 이전 출생자)
 - MTB자전거 (비키사이즈:26 또는 27인치, 비키폭:1.75인치 이상, 전/후 브레이크장착) 및 헬멧 등 안전장구를 갖추고 코스를 완주할 수 있는 건강한 남녀
- 종 목 : 50km 로드레이싱 개인전
- 참가비 : 1인당 3만원
- 지급품 : 중식, 배변(2매1세트, 기록칩 부착), 간식, 참가기념품
- 접수기간 : 2012년 10월 11일(목) 17시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bike.kjmedia.co.kr>)

시/상/내/역

구분	나이(만)	생년월일	시상범위	시상내역	
남자	시니어부	18세~30세	1994.10.21~1981.10.22	1~6위	1~3위:상장+상품 +트로피(현장시상)
	베테랑부	31세~40세	1981.10.21~1971.10.22	1~6위	
	마스터부	41세~50세	1971.10.21~1961.10.22	1~6위	
여자	그랜드마스터부	*51세 이상	1961.10.21 이전출생	1~6위	4~6위:상장+상품
	베테랑부	18세~40세	1994.10.21~1971.10.22	1~6위	
	마스터부	41세 이상	1971.10.21 이전출생	1~6위	

상품 : 남자 - 1위(50만원), 2위(30만원), 3위(20만원), 4위(상품), 5위(상품), 6위(상품)
 여자 - 1위(30만원), 2위(20만원), 3위(10만원), 4위(상품), 5위(상품), 6위(상품)
 * 대회당일 현장 시상식은 각부문 1~3위 만 시상합니다.

2012 Green 자전거축제

2012년 10월 21일(일)
 광주상무시민공원
 로드레이싱(경쟁 50km)

주최 : 광주일보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주관 : 광주광역시사이클연맹,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자전거연합회 | 후원 :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 전라남도생활체육회
 코스지원 : 광주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광주남부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 광주경찰서, 내주경찰서
 문의 062)220-0541 <http://bike.kjmedia.co.kr>